



새로 키운 '국산 심비디움' 살펴보는 연구원들 있다.

7일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온실에서 연구원들이 새로 육성한 국산 심비디움 품종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머지않아 유통 시기 맞이하는 '딸기' 보관 온도 잘 맞추면 신선 기간 3배로 '깡충'

농진청, 6품종 수확 뒤 처리 기술 적용 결과 제시
예비냉장 거쳐 저온에서 보관할수록 상품성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본격적인 딸기 유통 시기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주요 딸기 6품종의 수확 뒤 처리 기술 적용 결과를 7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딸기 수확 뒤 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처리기술을 적용해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딸기 품질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자 진행했다. 연구 결과, 딸기를 수확한 뒤 품온(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온도)을 떨어뜨리기 위해 예비냉장(5도에서 3~5시간)을 거쳐 저온(5도) 보관했을 때, 상온(20도)에서 보관했을 때보다 상품성

유지 기간이 1.5~3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실' 품종의 상품성 유지 기간이 12일로 가장 길었고, '산타', '숙향', '아리랑' 품종은 10일, '설향'은 9일, '킹스베리'는 6일 가량 상품성이 유지됐다. 또한, 물러짐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CO2)를 30% 농도로 3시간 처리한 결과, 대부분 품종에서 경도(단단함)가 1.4~2배까지 증가함을 확인했다. 특히 '설향'과 '금실', '킹스베리' 품종은 과육이 더욱 단단해져 신선도 유지 기간이 2일 정도 늘어났다. /김윤상 기자

연구진은 "딸기는 보관 온도나 이산화탄소(CO2) 처리여부에 따라 신선도 유지 기간이 달라지므로, 농가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는 품종별 유통 기간을 고려해 출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에서는 딸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용기에 비닐로 한 번 더 감싸 냉장고에 보관하면, 바로 냉장고에 보관할 때보다 2~4일 정도 더 신선하게 즐길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흥운포 저장유통과장은 "현재 저온 관리나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이 개발돼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기능성 용기나 부패 미생물 제어를 위한 동시 복합 처리 기술 등을 개발, 보급해 딸기 상품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집콕족 사로잡은 '안테나숍' 코로나19에도 "끄떡 없다"

전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등 판매 6곳
연 매출 2년 연속 20억원 돌파... 소비 활동 파악
6호점 개설로 몸집 키우며 제품 존재감 입증한 결과

전북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등을 홍보 판매하는 안테나숍(6개소)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 2년 연속 2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의 소비 활동을 파악해 안테나숍 6호점을 개설하며, 몸집을 키우는 대범한 결정과 전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필연적 존재감을 입증한 결과로 판단된다. 안테나숍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반응을 테스트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자가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5월부터 익산 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도내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안테나숍에는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생산한 제품 중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전시·판매 중이며, 생산업체가 직접 참여

하는 판촉 행사와 전문가 자문과 소비자 반응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어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프로모션 등 시범 운영을 통해 온라인 소비영역을 발굴, 올해 본격적으로 홈코노미 소비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 수립 방안으로 언택트(untact) 서비스를 폭넓게 가동 할 예정이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물품목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객분위(顧客本位) 실천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MZ세대와의 소통' 밀레니얼보드 출범 LX, 젊은 직원 아이디어 경영 전반에 반영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MZ세대와의 소통과 혁신을 위한 밀레니얼 보드를 출범한다. 7일 LX는 젊은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밀레니얼보드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밀레니얼보드는 지난해 12월에 만 35세 이하, 근무기간 2년 이상 희망나눔대학원을 모집해 최종 21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세대(직급)간 소통 매개자 역할과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정렬 사장은 "조직문화의 혁신을 위해 우수인재 확보가 중요한 만큼 밀레니얼보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여기서 제기된 혁신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잘 반영해 공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초고강도 슈퍼콘크리트 배합기술 이전받아

KSC, 신개념 축사시설 '스마트 애니팜' 출시

(주)KSC(대표 노명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강도 슈퍼콘크리트 배합기술을 이전받고 '스마트 애니팜' 축사를 시공해 적용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명섭 대표는 "충남 논산에 위치한 (주)KSC는 30여년간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해 온 기업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긴 시간의 노하우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슈퍼콘크리트 연구단'으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강도 슈퍼콘크리트 배합기술을 기술이전 받아 3년여 간 R&D로 '슈퍼 콘슬라트', '슈퍼 베드', '슈퍼 슬러지탱크' 등을 개발, 신개념 축사시설인 '스마트 애니팜'을 출시해 앞으로 국내 축산업계에 큰 일조를 할 전망이다"고 발표했다. 특히 (주)KSC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슈퍼콘크리트는 마이 크로와 나노재료를 활용하 융복합 기술로서 일반 콘크리트 대비 최대 10배 높은 강도와 4배 이상의 내구 수명을 자랑하며 유지관리 비용 또한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또 "제품 중량도 30~50% 감소시켜 시공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불처럼 흐르는 유동성으로 복잡한 형태의 제품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자랑했다. 게다가 노명섭 대표는 "슈퍼콘크리트는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스마트 애니팜 제품뿐 아니라 기존 콘크리트와 강재가 적



'스마트 애니팜 축사' 투시도.

슈퍼 콘슬라트·베드 슬러지탱크 등 개발
100년 이상 수명 가진 아파트형 2중 구조 프리캐스트 공법건축

용되는 건설 모든 분야에 대체 가능하여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슈퍼콘크리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키며 앞으로 국내 및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아이템을 계속 출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스마트애니팜 개발 배경과 관련 "지금까지 기존 축사에 사용되고 있던 콘슬라트 제품은 시멘트·모래·자갈 등으로 만들어지며, 강도는 25~35MPa 정도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최근 극히 일부 제품에 50MPa 정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동종업계에서는 서로 강도가 높다고 홍보하지만 기존 콘

슬라트 업체의 생산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압축강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콘슬라트 제품들은 축사의 오물 등과 반응해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빨리 진행되면서 콘크리트 자체에 공극이 많아 고압축 시 시멘트 페이스트는 물론 골재가 떨어져나가 바닥재가 얇아지고 분리된 시멘트와 골재는 하수관로에 적용돼 오수관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축사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노명섭 대표는 "KSC에서는 이러한 기존 콘슬라트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슈퍼콘크리트 배합기술을 기술이전 받아 지난 3년여 간의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거친다"며 "스마트 애니팜의 가장 중요한 부재인 '슈퍼 콘슬라트'와 '슈퍼 베드', '슈퍼 슬러지탱크'를 개발함으로써 오직 KSC만의 독자적 기술인 스마트 애니팜을 탄생시켰다"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7일 군산 한들고등학교 회의실에서 희망나눔천사학교 협약식을 진행하고 나눔에 참여한 희망나눔천사들에게 후원회원증 전달, 학교에는 희망나눔 천사학교 명패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도내 21번째 '희망나눔 천사학교'

군산 한들고, 적십자사 전북지사와 협약 체결
총 120명의 1~2학년 학생들 중 20명 자발적 참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7일 군산 한들고등학교(교장 장용석) 회의실에서 희망나눔천사학교 협약식을 진행하고 나눔에 참여한 희망나눔천사들에게 후원회원증 전달, 학교에는 희망나눔 천사학교 명패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군산 한들고 총 120명의 1~2학년 학생들 중 20명이 자발적으로 나눔에 참여했다. 전북적십자사와 군산 한들고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봉사정신 함양, 청소년 활동 지원, 불우청소년을 돕기 위한 후원활동 등 이웃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천사들에게는 RCY활동소식과 기부금 집행내역이 주기적으로 전달된다. 희망나눔천사가 된 군산 한들고 박혜민 학생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건 당연한 것이라 배웠는데 희망나눔천사라고 불러주셔서 부끄럽다"며 "우리 학교가 전북에서 가장 많은 천사들이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나눔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군산 한들고 장용석 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먼저 나서는 우리 학생들을 보고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학생들이 혼자서 아닌 주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희망나눔 천사학교'는 학생들이 매월 소정의 용돈을 모아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희망나눔천사'로 등록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현재 군산 한들고를 포함해 전라북도 내 21개 학교가 협약을 맺고 673명의 학생들이 희망나눔천사로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희망나눔천사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부내역이 적십자사에 기록되어 입시 및 취업 시 인성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의 부모는 연말정산 시 자녀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희망나눔천사 학교에 관한 문의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RCY본부(063-280-5841)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폭설 속에서도 이어진 사랑의 헌혈 릴레이

경진원, 전북혈액원과 함께 부족한 혈액 수급 대처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7일 경진원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혈액수급에 대처하고 사회 전반의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경진원은 매년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요의 증가에 비해 헌혈 인구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헌혈 문화운동 확산과 의료기관으로 공급되는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경진원에서 10년째 실시한 헌혈 행사로, 폭설 속에서도 경진원 인직원 약 20여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헌혈에 참여한 정민재씨는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실천"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헌혈을 통해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진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김장봉사, 연탄봉사, 사랑의 헌혈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